

길림성, 청소년 마약퇴치 행사 성황리에

6월 26일, 길림성마약금지위원회는 길림대학에서 '마약이 명에 되지 않게, 청춘은 태양을 향해'를 주제로 '2025년 길림성 6.26 국제 마약퇴치 날 청소년 약물 램용 예방' 선전행사를 조직했다.

성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류금과, 성정부 부비서장이며 성마약금지위원회 부주임인 가수성, 성마약금지위원회 부주임이며 성공안청 부청장인 장군, 길림대학당위 부서기 정세해 및 성마약금지위원회 성원단위, 길림대학, 장춘시공안국 관련 지도자, 일부 대학생 대표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 성 마약퇴치 단편영상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우수작품 상영이 이어졌다. 올해 3월부터 길림성마약퇴치공실은 공청단길림성위와 공동으로 '청소년 약물 램용 예방'을 주제로 전사회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선전 단편영상 공모전을 개최, 총 124편의 마약금지 단편영상과 340점의 마약금지 포스터를 접수했다.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치명적인 위장 (致命伪装)>, <타오르지 못한 꿈 (未燃燒的梦)> 등 2편이 전국 마약퇴치 우수 단편영상에 선정되었다.

"저는 중국 마약퇴치 자원봉사단 일원이 되기를 지원합니다. 력사의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마약퇴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길림대학과 장춘리공대학 등 10개 대학에서 온 100여명의 학생 대표들



사업일군들이 마약의 특징과 위험성, 식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 구성된 마약퇴치 자원봉사단이 열심히 선선했다. 강인한 선서는 청춘의 힘을 보여주었고 마약을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전달했다.

길림대학 법학과 초모 학생은 "선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대학생 마약퇴치 자원봉사자로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마약퇴치 지식을 알리고 마약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청춘과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장 전시구역에 다양한 모형의 마약 견본이 진열된 가운데 사업일군들이 마약의 특징과 위험성, 식별 방법

에 대해 설명했다. 마약탐지기 등 일련의 최첨단 마약 수사 전문 장비들이 전시되었으며 경찰견의 다채로운 마약 수색 시범은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체험구역에는 '길림성 온라인 마약퇴치 교육기지' VR 체험과 마약퇴치 지식퀴즈, 마약퇴치 연결 게임 등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길림성공안청 마약퇴치총대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마약퇴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마약도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순화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마약 관련 물

품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다. 오늘 행사를 통해 그들이 마약의 위험을 더 깊이 인식하고 마약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워 스스로 중독성 물질을 멀리하고 '건강 인생, 녹색 무해'의 리념을 확고히 세워 평안길림과 마약이 없는 길림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전 성 각급 마약퇴치부서는 국가와 성 마약퇴치위원회의 호소에 적극 부응해 일련의 다양한 형식의 마약퇴치 주제 선전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앞으로 전 성 각급 마약퇴치부서는 지속적으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마약 예방교육 체계를 개선하며 마약퇴치 선전의 '6대 진입 (六进)' 사업을 추진해 전 민의 마약식별, 마약예방, 마약거부 의식을 제고하고 견고한 사상 방어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근원 단속, 류통 차단' 행동을 통해 단속을 심화하고 마약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며 마약성 화학물질과 마취제의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해 류실, 램용 위험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전문부문과 대중의 결합, 합동예방통제 (群防群治)를 고수하여 인민대중과 사회각계의 힘이 마약퇴치 투쟁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함양의 마약퇴치 사업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오건기자



"법원 덕분에 5,000 만원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장춘시중급인민법원 대중들의 리익 보호에 최선을



"오매에도 기다리던 5,000 만원 넘는 보상금을 한푼도 모자라지 않게 제때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원과 류법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장춘시 관성구 랑가진 곽자춘 촌민 대표들은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백성의 리익을 보장하다'라는 내용을 적은 감사기와 함께 라마음을 담은 편지를 장춘시중급인민법원 집행국 집행처 류양법관에게 전달했다. 이는 대중들의 기대에 대한 사법부문의 확고한 응답이었다.

45 건의 해당 계열 사건이 동시에 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류양은 그 무게를 인지했다. 토지보상금에는 삶의 터전과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 그리고 생계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력사적 자금 공백이 거대한 바위처럼 주민들을 압박하였다. 류양은 즉시 관성구법원과 소통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

며 공문을 보내 자금의 성질과 법적 의무를 조목조목 분석 설명하면서 대중들의 기대를 전달했다.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관성구정부는 "즉시 자금을 조달하여 전액 지급 의무를 리행하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했다.

승낙은 즉시 실천으로 옮겨졌고 법률의 존엄과 정부의 공신력이 담긴 5,324 만원의 특별 자금은 마침내 원활히 조달되었다. 자금이 계좌에 들어온 그 순간은 45 건의 관련 사건이 단번에 완만한 해결을 보았음을 의미한다.

집행은 사법 공정의 '마지막 1키로메터'이다. 장춘시중급인민법원 집행팀은 대중을 위한 책임감과 분초를 다투는 신속함으로 촌민들의 권익을 실리로 바꾸었다.

/리전기자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가짜 한국화장품 구매대행한 류학생, 징역 4 년에 500 만원 벌금

최근 수년간,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류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 집단을 둘러싼 행사사건들도 점차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한국 사법기관 및 여론의 주목을 자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류학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구매대행' 방식으로 근로 및 학업 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률 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은 종종 그 속에 내재된 법률적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길에 빠져 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류학생 자신의 미래를 파멸시키는 결과도 초래한다.

필자 또한 현재 한국에서 정치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류학생으로서 한국의 로팸에서 10여년간 풍부한 실무 교류 및 연구를 수행하던 중 다수의 중국인 류학생과 관련된 구매대행 행위 행사사건을 접하고 깊이있게 리해할 기회를 가졌다. 그 사건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바 일부는 상표 위조와 관련되고 일부는 밀수와 관련되며 그 구체적 정황도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은 거의 모두가 법률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경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건 개요]

강소성 서주시중급인민법원은 2016년에 서주시 법원 지식재산권 분쟁 10대 전형사례중 하나인 <구매대행 명의로 위조 상품을 판매, 한국 류학생인 중국 학생 감옥에 갇혀 (사건번호: (2016)소03형초74호)>를 발표했다.

한국 류학생인 녀대생 장모씨는 위챗을 통해 대량의 위조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법에 따라 '위조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원래는 '구매대행' 명목으로 시작된 부업이었지만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그녀를 감옥으로 이끌었고 법을 몸소 어긴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장씨는 자신이 구매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처로부터 상품을 받아 위챗 채널을 통해 타인에게 판매했는바 그 불법 영업 금액은 인민폐 820 만원을 초과했다. 법원은 장씨가 리익을 목적으로 위조 등록상표 상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했고 그 금액이 거대하여 그녀의 행위가 '위조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징역 4년에 인민폐 500 만원의 벌금형을 병과했다.

[법률조목]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14 조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했어 불법소득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소득 금액이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 4 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알고 있음'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자신이 판매했는 상품에 부착된 등록상표가 훼손·교체 또는 덮여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 (2) 상표등록인 권한 문서를 위조, 수정하거나 해당 문서를 위조, 수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 (3) 이전에 위조 등록상표 상품을 판매했어 형사 또는 행정 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상품을 재차 판매했는 경우;
- (4) 합리적 사유 없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수 또는 판매하는 경우;
- (5) 행정집행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위조 등록상표 상품을 판매했는 사실을

적발한 후 위조 상품이나 회계증빙 등 증거를 은닉·파기하거나 허위 증명을 제공한 경우;

(6) 기타 위조 등록상표 상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

<지식재산권 침해 행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 5 조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고 판매했고 불법소득 금액이 3 만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 214 조의 '불법소득 금액이 비교적 크다'는 요건에 해당한다.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심각한 정황'에 해당한다.

- (1) 판매 금액이 5 만원을 초과한 경우;
 - (2) 2년 이내 <형법> 제 213~제 215 조 규정 위반으로 형사 또는 행정 처벌을 받은 후 재차 위반하고 불법소득 금액이 2 만원 이상 또는 판매 금액이 3 만원 이상인 경우;
 - (3) 아직 판매되지 않은 위조 등록상표 상품의 물품 가액이 상기 항목 판매 기준의 3배 이상인 경우, 또는 이미 판매된 상품의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나 미판매 상품 가액과 합산하여 기준의 3배 이상인 경우.
- 불법소득 금액, 판매 금액, 물품 가액 또는 이들의 합계가 상기 기준의 10배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14 조의 '불법소득 금액이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에 해당한다.

[주의사항]

'구매대행'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쉬운 돈벌이'의 리면에는 심각한 법률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장씨의 사건은 뼈아픈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구매대행 행위가 위조 등록상표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해외에서 구매된 것이든 '학생 아르바이트' 명분이든 위법 판매로 판단되면 중국 <형법> 제 214 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체류중인 중국인 류학생들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1. 해외에 있더라도 중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2023년 개정된 <형법> 제 7 조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가 국외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도 그 행위가 중국내에서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그 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하더라도 위챗을 통해 중국내 소비자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국 사법기관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구매대행' 명목으로 위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구매대행한 상품이 정규 경로를 거치지 않았거나 브랜드사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당 상품이 위조 등록상표 상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 '저가 고리악'은 법률적 함정을 수반한다.

사법해석은 합리적 사유 없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수한 경우를 '위조 사실을 인지'한 구제 정황으로 본다.

4. 법률의 의식을 제고하고 류학의 기본선을 지켜야 한다.

류학은 단순한 학문 축적 과정이 아닌, 법률 의식의 시험장이기도 하다. 구매대행,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등 분야에 발을 들일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을 리해하고 준수하여 일시적인 무지나 리익 추구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소비자도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

현재 국내 구매대행 시장은 혼란스러우므로 가급적 정식 경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여 위조 상품을 사는 피해를 피하고 나아가 위조 상품을 되파는 과정에서 행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류의해야 한다.

법 외에 면책특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에 있다고 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는 없다. 모든 류학생들이 본 사건을 교훈 삼아 법적 경계를 넘지 않고 안전하게 류학을 마치고 뱃머타게 귀국하길 바란다.

/리현 (한국 경기대 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물웅덩이에 넘어진 로인 부축하지 않은 경찰 해임!



최근 인터넷에 '로인이 고인물에 넘어졌는데 가까이 있던 경찰이 부축하지 않은' 영상이 류포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 로인이 고인물에 넘어졌는데 가까이 있던 경찰 부축하지 않아

6월 21일 오전, 하남성 주주시 태강현의 풍모는 "집이 물에 잠겨 저희 부모가 밖으로 대피할 때 아버지가 물에 빠져 1분 정도 허우적거리다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났다."고 보도매체에 반영했다. 영상에는 당시 경찰이 불과 몇발자국 밖에 안되는 곳에 서있으면서 로인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뿐 부축하지 않은 장면이 담겼다.

류포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 40분경 두 로인이 선후로 집을 나와 물을 헤가르며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몇사람이 도랑을 파고 있었고 옆에는 경찰이 서있었다. 뒤따르던 로인이 비틀거리며 물웅덩이에 넘어졌다. 앞서가던 로인이 얼른 다가 부축했지만 쉽지 않았다. 근처 경찰들은 바라보며 소리만 칠 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이후 이웃 녀성 한명이 달려와 로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풍모는 기자에게 "이웃집 땅바닥이 높은 탓에 비가 온 뒤 배수가 안 돼 우리 집이 침수됐다."며 "6월 19일, 특별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현장 처리 과정에서 로인이

넘어진 걸 보고도 경찰이 즉시 부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풍모는 "우리는 장기간 외지에서 일하다 보니 집에는 80세가 넘는 부모님만 계신다."며 "현재 두 분 건강은 괜찮은 편이나 다리도 머리로 불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로인이 위험한 걸 보면 최소한 부축이라도 해야 하는데 경찰들은 무관용이었다."고 하면서 "결국 이웃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관련 경찰 해임 처리

앞서 태강현공안국 관계자는 "사건 발생후 태강현공안국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즉시 치안, 감찰 등 부서로 구성된 조사팀을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풍모가 반영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풍모가 반영한 상황이 기본상 사실에 부합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경찰 위모는 왕집파출소 교도원으로서 현재 해임 처리되었으며 진일보 조사중이다. 보조경찰 리모에게는 정무징계처분 (경고)을 내렸다. 이 밖에 공안기관에서는 전문 인원을 파견해 로인의 요구를 청취하고 풍모와 그 가족의 양해를 구했다.

태강현공안국 관련 책임자는 "사회각계의 감독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류사 사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양인민방송넷